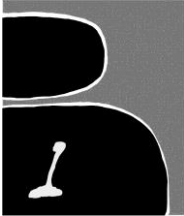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법회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붓다회나 미국 부다나라로 연락 바랍니다. Daum 카페: 한국붓다회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Every Tuesday 6:30 p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Tuesday 6:00 pm -TBA Meditation for the Beginner
☺ Intensive Meditation 7:00 PM – 10:00 PM: Fourth Tuesday of the Month	

이달의 법구경

진실을 말하고,
노여움에 양보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이 세 가지 행동은
천상으로 통하는 길이라네.

Speak the truth, yield not to anger, give what you can
to him who asks: these three steps lead you to the pure
land or heave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당: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당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경전: 반야심경

① “수행과 포교의 전법을 굴러라”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반야심경> 봉송이다. <반야심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줄인 말로, 대승불교의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은 경전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반야심경> 번역본은 모두 7종류가 있다고 한다. 현재의 한역 반야심경을 번역한 스님은 중국의 현장스님이다. 인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현장스님은 당 태종의 칙령으로 세워진 국립번역기관인 번경원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경전의 번역작업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역점을 둔 번역이 바로 <반야심경>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순한역으로 이뤄진 <반야심경>의 음을 살리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미한 <한글반야심경>을 보급 중에 있다.

불교문화연구소가 1976년 편찬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해석한다. 상당한 의역을 한 것인데,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마하란 매우 크다는 뜻을 지닌다. 매우 크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말하는가. 그 크기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크기’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의 틀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하다.”

반야바라밀은 범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반야바라밀은 열반에 이르기 위해 보살이 수행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한다. ‘보살이 수행을 통해 매우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마음(心)’이라는 의미가 경전의 이름에 내포돼 있다. 또는 심(心)은 핵심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매우 큰 진리의 핵심을 다룬 경전이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반야심경>은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해석한 ‘소(疏)’만도 수십 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경전의 내용을 소개한 각종 책자가 다수 출간돼 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본 연재에서는 <반야심경>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인 공(空) 사상과 연기사상, 오온의 가르침 정도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의문을 갖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야심경>이 왜 대승경전일까.

그 해답은 맨 뒷 부분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하바’에서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진언이라고 하며, 예부터 진언은 그 신비성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의 제바보살(提婆菩薩)은 “간다 간다. 저쪽으로 간다. 결정코 피안에 갔다. 도심(道心) 있는 중생이여”라고 번역하였다. 또 신라의 원측법사(圓測法師)는 “홀륭하도다 홀륭하도다. 저 피안은 홀륭하도다. 각(覺)이 다 끝났도다”라고 번역을 했다. 현대의 여러 해설서에서 보이는 번역은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반야심경은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나 뿐 아니라, 옆의 법우도 이웃도 함께 대승의 반야용선을 타고 가자는 권유형의 가르침으로 끝을 맺고 있다.

소승불교는 수행과 포교를 분리해서 인식한다. 하지만 대승불교는 수행과 포교를 수레의 양바퀴로 표현한다. 둘이 함께 병행되어야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함께 그 수행의 길을 가자는 서원과 다짐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크게 공(空)과 연기(緣起)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 사상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② 마음(心)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단어를 꼽으라면 ‘마음(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보는 마음, 사물을 관찰하는 마음을 제대로 깨우치면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럼 어떤 마음을 깨우쳐야 할 것인가. 모든 만물의 본질은 제법무아, 제행무상, 열반적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꿰뚫어볼 때, 나의 근본을 알 수 있다.

제법무아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으며, 변하지 않는 자아(우리)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인연의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아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다. 제행무상은 모든 사물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질없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모든 번뇌의 불을 끄는 상태, 즉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알고, 모든 번뇌를 없애 열반적정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색(물질)이 공(空)과 다르지 않다. 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만물은 인연에 따라 흩어졌다가 뭉치기를 반복하면서 어떤 형태를 지닌다. 나라는 지금의 상태도 매 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궁극에는 뻘, 살, 피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CHON 네가지 원소상태가 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인연에 의해 다시 태어나면서 일정한 형상을 갖게 된다.

즉, 영원한 나의 몸(물질, 색)이 없다는 본질에서 생각할 때, 눈과 코, 입, 몸, 의식도 없는 것이다.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것도 우리의 관점에서 구별을 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더 큰 관점으로 보자. 나라는 육신과 의식의 결합체는 계속 변화한다. 태어나거나 죽는 것은 그런 변화의 한 과정일 뿐,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다.

식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한 계기는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 됐다.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안락의 세계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식달타 태자는 성문을 뛰어넘어 고행을 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 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다”는 진리였다. 제법무아의 진리다.

물리학에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보존됨을 검증한다.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뀔 경우,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 또 석유라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될 경우, 질량과 여러 요소들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법(지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늘지도 줄지도 않고, 멀하지도 않는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우리의 인식의 문제일 뿐, 사물의 본질은 아니다.

말끔한 옷을 산다고 하자. 그 옷을 입고 몇 일간 다니면 옷을 금세 더러워지게 된다. 다시 세탁을 해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 옷에 대해 언제나 깨끗한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물도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상태로 머무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굴절된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눈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마음도 어떤 일에 동요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반야심경>은 이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모든 수행자들도 이같은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 진실하고 헛된 것이 없는 가르침,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르침이 <반야심경>이다.

③ 연기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은 ‘공(空)’ 사상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정신은 결국 그 본질을 꿰뚫어보면 공하다는 것이며,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과 자연현상도 본질적으로 공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空)한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세상만물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은 연기다. 세상이 공하다는 원리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없다는 존재, 무(無)에서 유(有)가 나오는 이유는 연기에 의해서다. 즉, 공과 더불어 연기의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遠離顛倒夢想, 뒤바뀐 헛된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연기는 인연의 조건이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하다,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로 증발하거나 다른 물질과 만나 성질이 변화하지만 수소와 산소라는 기본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소 2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 된다. 여기에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성분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여러 물질로 변화된다. 즉, 근본적인 구조는 CHON 이지만 그 결합상태로 인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이다.

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업도 그렇게 생성이 된다.

과거 생에 쌓은 업이 모여 현생의 ‘나’라는 생명체가 탄생한다. 또 과거생과 현생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에 따라 또다른 업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나의 가족이 행복하냐 아니냐, 내 주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중심에는 ‘나’의 업이 작용한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여건에 의해 사람의 인성과 성장 방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세계를 통해 투영된 나를 볼 때는 다르다. 나로 인해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영향을 다시 내가 받고,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무 정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결합하고, 정신을 이루면서 이뤄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업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반야심경>이 제시하는 길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은 최상의 지혜를 의미하며, 반야바라밀을 통해 최상의 깨달음(아뇩다라삼막삼보리)을 얻는 길이다. 최상의 지혜란 모든 물질이 공하다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공한 물질이 연기에 의해 결합된 실상을 보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귀결된다. 인도에 가면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타지마할이 있다. 타지마할은 인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왕 샤 자할이 세운 왕비의 무덤으로, 많은 사람이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목숨과 재산을 잃어야 했다. 샤 자할은 당시 노역에 끌려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악한 임금’이었다. 그런데 그 타지마할로 인해 지금 수많은 인도인들이 관광수입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인 모두가 존경했던 이슬람의 한 왕은 죽으면서 약간의 돈을 내밀었다. 젊어서 맘을 흘려 번 돈의 전부라며 그 돈 만큼 땅을 사서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그 임금은 당시 인도인들에게는 성군이였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선한 업이고, 무엇이 악한 업인가. 업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본질을 보는 눈이 바로 지혜이며, 일반적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닦는 길이 반야바라밀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보살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무상(無上) 정등(正等) 정각(正覺)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높은 것이 없고 가장 바르고 최고의 깨달음을 말한다.
법회에서 <반야심경>을 외면서 하루에 한 단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한다면, 멀지 않아 불교의 요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기

보경스님 서울 법련사 주지스님 법문

부처님이 카필라바스투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여름 안거를 마친 부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안 재가신자 마하나마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비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가사를 다 꿰매면 곧 다른 곳으로 떠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기가 천박하여 부처님이 안 계시면 사방이 아득하여 들은 법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여러 친한 스님들과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 뵈을 수 있을지요?”
마하나마의 청은 요컨대 부처님이 더 오래 있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마하나마를 달랬다.
“마하나마여, 너무 섭섭해 하지 말라. 네가 참으로 믿음이 깊은 신자라면 여래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친한 비구들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다섯 가지 바른 법을 생각하고 닦으라. 그러면 너는 항상 여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리라.
다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요, 둘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요, 셋째는 자주 설법을 듣는 것이요, 넷째는 널리 보시를 행할 것이요, 다섯째는 바른 지혜를 갖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재가신자는 이 다섯 가지 법에 의지해 여섯 가지 공덕을 잘 닦아야 하리니 여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여래는 나의 스승’이라고 믿는 것이요, 둘째는 ‘불법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셋째는 승단은 ‘가장 청정한 집단’이라고 믿는 것이며, 넷째는 ‘계율은 가장 깨끗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다섯째는 ‘보시는 가장 훌륭한 공덕’이라고 믿는 것이며, 여섯째는 ‘이러한 믿음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나의 재가제자는 항상 이상과 같은 열한 가지 법을 잘 닦고 성취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결정코 그 성취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니라.”<잡아함> ‘십일경’
“곡불장직(曲不藏直)”이라는 말이 있다. ‘곡선을 직선 속에 숨길 수 없다’는 뜻이다. 세상 만물은 각자의 곁이 있다. 언 듯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별하여 일정하지 않다. 직선과 곡선은 서로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자가 스승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모른다.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치고 떠나려하자 재가신자인 마하나마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의지해야 할 다섯 가지 법과 여기에 의지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공덕을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법이 계율의 측면이라면, 여섯 가지 공덕은 믿음이 근간이 된다. 여래는 나의 스승, 불법은 가장 귀하며, 승단을 믿고, 계율을 수호하고, 보시의 공덕을 쌓고,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일들이 모두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교설을 모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인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에 이른다”는 말이 진리에 대한 자세다. 누가 뭐래도 내가 실천하고, 공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있다. 여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좋다.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연등회 회향은 광화문광장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봉축표어와 함께 주요행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봉축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봉축위원회는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봉축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화해와 자비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갖는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9일 서울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연등회 등으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22호 연등회는 어울림마당,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 만 개의 전통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5월 16일 오후 6시부터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연등회 회향한마당 자리를 종각사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전통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마당은 5월 1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가, 오후 7시부터 화려한 춤과 신나는 율동 흥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도 펼쳐진다. 갖가지 종류의 등을 만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의 각 지역과 사찰에서도 다채로운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연등축제 홈페이지(<http://www.ll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비심을 나눌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으면...

성민스님 홍천 백락사 주지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모인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진 것이다.

- 서산스님 '열반송' 중에서 -

아주 오래 전 선달그믐. 시내 불일을 보러 가다 마을 초입 다리위에서 만난 낯선 여인의 스산한 느낌. 방향이 같은지 물어 보아야하나 잠깐 번민하다 외지인인 것 같아 그냥 지나쳐 불일을 보았던 별일 아닌 일상. 정초기도 후 마을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외지에 있던 딸이 고향에 돌아와 다리에서 몸을 던진 사연으로 몸져누워 있는 상황을 접하고는 순간 떠오르는 낯선 여인의 슬픈 뒷모습.

언제나처럼 문을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번민을 다리 위에서 흘렸을까? 세상의 찬바람에 지친 육신을 고향의 강가에서 또 메달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향에서도 타인으로 외로워하면서 마음 하나 놓을 곳 없는 방황의 연속이었을까?

짧은 만남 뒤의 내 번민의 무게는 오래 동안 나를 짓누르고 다리 위를 지나칠 때면 그 여인이 보이곤 하면서 머뭇거리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전한 것이 못내 한이 되곤 합니다.

춘천에 사는 옆집 총각은 집에 들르면 간혹 나들이를 절로 하곤 했었는데 요번 여름행사에는 며칠 봉사를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 같지 않게 착한 심성이 느껴져 한가하면 차라도 대접해야지 했는데 운명을 달리했다는 문자를 마을 반장에게 받고는 어안이 병병해 늦은 시간 문상을 하고 전해들은 사연은 이해 할 수 없는 다리 아래의 사고였습니다.

내 앞의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한 조각구름인가?

집안일 거들과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는 날 너무 더워서 강가에 먹이나 감고 돌아와 가겠다며 집을 나선 것은 오전 10시, 가족이 오후 1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는 사람은 경찰. 응급실로 달려가니 벌써 운명을 달리한 상태. 등허리에 물이 묻지 않은 얇은 곳에서 몸을 숙이고 천렵을 했던 모양인데 순간 심장마비가 왔었나 봅니다.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고 응급차가 왔지만 이미 달리한 운명 앞에 가족들은 혼이 나간 상태로 초상을 치루고 돌아온 집안에는 총각이 가지고 갈 밀반찬이며 옷가지들이 슬픔으로 포개져 있었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무상을 이야기하자면 글을 풀면 되지만 삶의 무상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하루 한번은 지나는 저 다리가 바라보입니다.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몽환의 풍경도, 고추잠자리 떼 지어 날고 있는 평화로움도 잠시 머문 내 인연의 시선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 한 잔 나누지 못한 미련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삶의 연속을 생각하면 마음이 일어나 자비심을 나눌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을 아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존재의 인연들이 너무 우리를 슬프게도 말고, 너무 들뜨게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마음. 구름이 모인 것일까요? 흩어지는 것일까요?

못 미더워서... 관심 없어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

“리퍼트 대사님 사랑합니다.”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때 아닌 춤공연이 벌어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소속 신도들이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비는 행사였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과하다, 거북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는 이 춤공연을 ‘광기’라고 깎아내렸고 ‘미국에 대한 숭배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상을 보듬고 약자를 위로하던 종교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 성직자 막말 파문, 성추문, 이익집단화까지 일부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의 추한 민낯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조찬기도회’라 이름붙인 무대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종교계 내부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18 일 한국교회언론회는 “서울 지하철 봉은사역 명칭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특정 종교 사찰 명칭을 지하철 역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하고 종교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1 월 발표된 한국갤럽의 ‘한국 종교 실태’ 조사 결과는 싸늘한 민심을 담고 있다. 2014 년 현재 종교인은 인구의 50%로, 10 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들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고(45%),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19%)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종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종교를 등지는 이유로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다’(18%)고 답했다. 이런 경향은 특히 ‘먹고살기’ 바쁜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갤럽 조사를 보면 2004 년 45%에 이르던 20 대 종교인이 2014 년엔 31%로 줄어 들었다. 30 대 종교인도 같은 기간 49%에서 38%로 감소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탈(脫)종교인들은 새로운 ‘믿음’을 찾고 있다. 불안한 현실, 잡히지 않는 미래,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나홀로 신앙, 인문학, 템플스테이, 명상 등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기존 종교의 쇄신과 다양한 종교적 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나온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근대 이후 한국 종교가 마치 사회와 분리되는 폐쇄공간인 것처럼 집단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의 영적 욕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전통적 종교는 쇠퇴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종교는 인류의 지혜이자 역사적 자산이다. 보존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2015 년 3 월 20 일자 경향신문에서 발췌-

애틀랜타 붓다나라 불사의 현장



☞ 붓다나라 도량 장엄 불사와 호수주변 정비 불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블랙 잼 나무 2 그루, Pacific Juniper 70 그루, Blue Rug Juniper 120 그루, 제주 왕벚꽃나무 34 그루, 단풍나무 20 그루, Dogwood (충충나무) 4 그루, 연산홍 400 그루, 단감나무 4 그루를 심었습니다.

또한 꽃밭에는 해마다 심지 않아도 도량을 장엄할 수 있도록 짝을 띄우고 꽃을 피우는 구근들 중심으로 심었습니다. 벌써 스노우 드롭, 수선화, 튜울립이 꽃망울을 터트렸고 옥잠화, 백합등도 차근차근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꽃들도 따뜻한 봄기운을 받아 올라오며 도량을 장엄해 놓을 것입니다.

언제나 붓다나라 부처님을 찾으시는 신도님들은 참배 후에 명소인 솔밭 길 을 따라 걷다보면 모든 시름을 내려 놓고 평온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붓다나라는 신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자주 사찰을 찾아 기도, 발원 그리고 정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찰요리 I

썸바귀 튀김 : 위장에 좋고 항암효과도 입증

겨울철 산사 양지바른 둔덕이나 눈이 녹은 밭에 겨울잠을 자고 있는 썸바귀. 이름만큼 짭사름한 맛이 특징이다.

나물이라기보다 약성이 강해 한약재로도 사용된다. 잎과 뿌리 모두 먹을 수 있는 썸바귀는 겨울철에는 뿌리를 채취해 먹을 수 있다.

썸바귀의 쓴맛은 입맛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콤하게 무쳐 먹으면 식욕을 되찾을 수 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될 때 먹으면 좋다. 썸바귀의 쓴맛은 미각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요즘같은 겨울철 법주사에서는 빵가루에 묻혀 튀겨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썸바귀는 튀겨도 약성분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서는 썸바귀보다 ‘고들빼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썸바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 소화기능을 좋게 해 준다. 효능도 다양하다. 우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썸바귀를 복용했을 때 암세포 억제효과가 60~87%까지 나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암을 예방해 주는 성분 가운데 토코페롤이라는 성분(비타민 E)이 있는데 썸바귀는 이 토코페롤보다 항암효과가 14 배나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썸바귀는 또 몸의 열을 내려주고 장기의 독소를 제거해 주어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제거해 준다. 썸바귀 즙을 내어 마시면 당뇨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 국토에 널리 자생하고 있는 썸바귀는 구하기도 쉽다. 법주사 스님들이 공양하는 썸바귀 튀김으로 올 겨울 식탁을 한번 장식해 보자.

■ 재료 및 분량

썸바귀 뿌리 600g, 당근 120g, 감자전분 2 스푼, 빵가루 1 컵, 튀김용 식용유 적당량, 카레가루 1 스푼, 홍피망 1/2 개, 청고추 3 개, 소금 1/2 스푼, 설탕 조금

■ 만드는 방법

1. 썸바귀를 손질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1 시간 정도 담가놓는다. 이는 썸바귀에 들어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물기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르고 당근 피망 고추를 채로 썰어 놓는다.
3. 준비한 재료를 감자전분과 카레가루를 섞어 버무린다.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춘다.
4.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빵가루에 묻힌다.
5. 식용유를 끓여 최대온도가 될 때 빵가루에 묻힌 썸바귀를 튀긴다.
6.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설탕을 뿌린다.

사찰요리 II

무시래기 볶음 : 골다공증과 동맥경화 방지 도움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안심사는 사찰에 필요한 식재료를 대부분 자체조달한다. 하루 3 회 공양을 하고 아침에는 항상 죽을 먹는다. 사찰음식은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 선택이 까다롭다.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자극적인 조미료나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안심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사에서는 1 월 말쯤 되면 식재료가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한다. 이때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는 식재료가 시래기다. 시래기는 무와 배추시래기가 사용된다. 시래기를 잘 보관하려면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말리는 방법이 제일 좋다. 하지만 가을철 많은 양의 채소를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새끼에 매달아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말려 놓는게 일반적이다.

일부는 색깔이 바래기도 하지만 찬바람을 맞은 시래기는 파란 색을 유지한다. 이렇게 바짝마른 시래기를 며칠동안 물에 불려 원형을 회복시킨 다음 된장과 버무려 먹는 것도 유명한 사찰음식 중의 하나다. 시래기 가운데 즐겨먹는 것은 무시래기다. 무시래기에는 칼슘과 나트륨의 미네랄이 풍부해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 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막아준다. 비타민 A 와 C 가 풍부해 암도 예방하며 철분이 무보다 4 배나 많아 빈혈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된장에 버무려 물을 흥건하게 부어 국을 끓여먹기도 하고 자박자박 버무려 먹기도 한다. 아니면 찰뜨물을 부어 살짝 졸이듯이 약불로 끓여 먹는 찌개도 있다. 구수한 된장을 버무려 먹는 안심사의 시래기찌개를 소개한다.

재료 및 분량

무시래기 150g, 집된장 세 큰술, 들기름 조금, 찰뜨물 다시마 끓인 물 두컵

만드는 방법

1. 무시래기를 하룻밤 물에 담가 놓는다. 그러면 무의 본래모습이 살아난다.
2. 끓은 물에 푹 삶아 부드럽게 한다.
3.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4. 집 된장(막된장)을 적당히 섞어 들기름을 두른 뒤 자박자박하게 버무린다.
5. 찰뜨물이나 다시마 끓인 물을 넣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인다.

참고및 인용: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사찰음식 순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발간)

◎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을미년 새해맞이 정초 삼일기도 동참자 명단 -에틀랜타

1.경자생 상품행 변지연 ; 2.건명 임진생 조남국, 곤명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장남 갑자생 조민우 ; 3.청신녀 기사생 강미자, 건명 신축생 강용택, 곤명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장남 경오생 강정철, 차남 무인생 강현대 ; 4. 건명 박정근, 곤명 이호임, 병진생 박지훈, 경신생 김우진, 신유생 박성원, 손자 계사생 박태완, 손자 갑오생 박태울 5.청신사 사리자 임명환, 청신녀 보리행 서석용, 건명 경술생 발심행 임소영, 장녀 경진생 한도연 ; 6.건명 정유생 여해 백승화, 곤명 정유생

공덕심 백귀옥, 장녀 을축생 백민정, 차녀 임신생 백민영 ; 7.건명 정유생 윤용덕, 곤명 임인생 법륜화 김인숙, 자 정묘생 윤혜준, 자 경오생 윤일환 ; 8.건명 기유생 손종필, 곤명 신해생 손선영, 장남 신사생 손명정 ; 9. 건명 문흥남, 곤명 문평임, 장남 문성웅, 차남 문지성 ; 10.건명 임진생 Larry T. Owens, 곤명 갑오생 법계성 Owens ; 11. 임인생 백준 객선희 ; 12. 건명 을미생 강태호, 곤명 병신생 권귀순, 장남 정묘생 강승엽 ; 13. 건명 정유생 이상무, 곤명 신축생 강은미 자 무진생 이나연, 자 무인생 이현덕 ; 14. 곤명 무진생 신진숙, 자 정미생 이현선, 자 기유생 이현희 ; 15. 건명 병신생 김태호, 곤명 을미생 이형순, 자 정묘생 김혜정, 자 기사생 김혜경 ; 16.건명 갑오생 심우 임경호, 곤명 무술생 이명숙 장남 경오생 임태윤 ; 17. 원광 이상연 ; 18. 기축생 능인행 황귀연 ; 19. 청신녀 임오생 이내심 김양한, 건명 병오생 김기환, 곤명 기유생 윤석찬, 장남 경진생 김동준 (Brian Kim) (이상 19 가족)

☺ 세인트루이스 지역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을미년 새해맞이 삼일기도 동참자 명단은 2 월달, 407 호, 소식지에 나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회소식 NEWS

- 2015 년 을미년 부처님 오 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등 접수를 받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권선을 하셔서 업장소멸과 부처님이 이세상에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년 등 기도 동참비 \$100.00)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양력 5 월 3 일 일요일 (음력 3 월 15 일)	양력 5 월 22 일(양력 4 월 5 일) 금요일 - 양력 5 월 24 일(양력 4 월 7 일) 일요일

- 애틀랜타 붓다나라 참선법회를 2015 년 1 월 10 일 토요일 9 시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9 시부터 11 까지 약 2 시간동안 참선, 다도, Q&A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현지인들이 참석하므로 모든 법회 진행은 영어로 합니다. (토요 참선법회가 뿌리를 내리는 데로 화요일 저녁 참선 법회 및 참선 용맹정진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찰로 문의 바랍니다.)
- 2014 년 10 월에 애틀랜타 지역에 붓다나라가 창립된 관계로 2015 년도 1 월달 붓다나라 소식지부터는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 발송을 중단합니다. 붓다나라 소식지는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법당에도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발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시면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와 미주리주 지역을 제외한 타 주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붓다나라 소식지를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오하이오주에서 자비류 태권도장 관장이며 지역에서 정신적 지도자였던 김일권 거사님께서 2 월 25 일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해서 극락왕생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속에서도 수행을 하셨던 거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화롭게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Grage Sale 안내: 애틀랜타 붓다나라 신도회에서는 그라지 세일을 3 월 21 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Grage Sale 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심행 임소영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연산홍 400 그루 심기, 감나무 3 그루 심기, 온실과 정자 옆에 있던 치자나무 7 그루를 입구 주차장 쪽으로 옮겨 심기, 연산홍 주변과 감나무 위에 물취 뿌리기등 이 많은 도량 정비 작업에는 송지영 태권도 관장님 가족들이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봄이 되어 도량 정비 작업과 꽃과 나무 심기, 부처님 오신 날 준비등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신도님들의 봉사를 기다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연산홍 200 그루: Charles Shin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